

삼성그룹,

91년까지 용인양돈장 완전 폐쇄

- 금년부터 3년간 연 1만5천두씩 감축

◇...삼성그룹은 지난해 12월 1일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에 위치한 제일제당 용인양돈장을 91년까지 완전 폐쇄키로 하고, 금년부터 연 1만5천두씩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삼성그룹의 용인양돈장 폐쇄와 관련해 제일제당이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편집자 주>...◇

제일제당(대표 ; 손영희)이 양돈사업에서 손을 뗀다.

제일제당은 12월 1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양돈에 의한 돼지의 생산 억제방침에 호응하고, 양축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국내 최대규모인 용인양돈장을 '91년까지 완전 폐쇄키로 하고 현재 사육 중인 비육돈 4만5천두를 내년부터 1만5천두씩 줄여 나가기로 했다. 용인양돈장에서 생산되는 연간 8만두의 돼지는 그간 제일제당의 육가공원료와 수출용으로 전량 공급되어 왔다.

한편, 내년부터 줄이기로 한 1만5천두는 희망농가와 사내직원들에게 원가분양하며 제일제당이 필요로 하는 연간 약 30만두의 육가공 원료돈은 전량 양축농가에서 수매키로 했다. 또한, 미국, 영국, 덴마크에서 들여온 4백여두의 원종돈은 용인양돈장에서 계속 보존, 관리하돼 종돈분양사업은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용인양돈장이 계속 추진하거나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종돈분양사업을 희

망할 경우 이를 넘길 방침이다.

제일제당이 양돈사업을 농민들에게 넘김에 따라 양돈농가의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즉 두당 12만원 수준의 돼지 8만두가 농가소득으로 전환되면 약 100억원의 소득창출이 가능해진다. 현재 우리나라 양돈농가의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가 14두 정도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돈농가의 실질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또한, 다른 기업양돈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른 양돈기업도 사육규모를 감소하거나 양돈업에서 손을 떼는 경우가 예상되어 양돈업은 실질적인 농촌산업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양돈시장에서는 소수의 양돈기업이 가격의 등락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소규모 부업양돈농가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제일제당은 그간 육가공산업의 발달과 돈육수출 증가로 올해 약 20만두의 돼지를 수매하게 되는데



제일제당은 지난해 12월 1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양돈에 의한 돼지의 과잉생산 억제 방침에 호응하고 양축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인 용인 양돈장을 '91년까지 완전 폐쇄기로 하고 현재 사육중인 비육돈 4만 5천두를 금년부터 1만 5천두씩 줄여 나가기로 했다.



용인양돈장의 사육두수가 감소하면 수매물량이 대폭늘어나 내년에 30만두, 90년에는 40만두를 수매하게 된다. 수매두수의 증가에 따라 제일제당은 양돈농가와 장기공급 계약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양돈농가로 하여금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게 되어 생산에 전념할 수 있고 돈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일제당으로서도 적극적 사육지도를 통해 돈육의 품질향상이 가능하게 되어 생산농가와와의 협력관계가 증진될 것이다.

용인양돈장은 73년 용인자연농원의 토지개발에 필요한 퇴비의 자체공급과 개량돈 보급, 소득증대를 위해 설립되어 우리나라 양돈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또한 양돈기술의 과학화를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시설과 사육방식을 개발해 왔고, 컴퓨터를 이용한 사양관리방법을 도입하는 등 사양기술의 발전에 앞장서 왔다.

세계적 우량종돈인 랜드레이스, 라지화이트등 4종을 3원교배시킨 개량품종의 우량종돈을 86년에 1천3백두, 87년에 1천4백두, '88년에 1천5백두씩 국내에 보급해 왔다.

또한, 육질개선을 통한 돈육수출에도 앞장서 왔다. 용인양돈장은 국내 최초로 105kg 규격돈 생산을 정착시켜 육가공용 및 커트미트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는 낙후된 사양기술로 인

해 90kg 규격돈에 의존해 왔는데 105kg 규격돈 생산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면 돈육수출 물량증가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돈육수출은 86년 1만8천1백40두에서 지난해 7만4천7백60두, 올해는 14만4천9백두를 수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우리나라는 6만8천8백20두(선적기준)의 돈육을 일본에 수출했는데 이중 제일제당이 1만4천8백60두로 21.6%를 차지했다.

이중에서도 제일제당과 같은 대규모 가공시설을 갖춘 육가공업체들이 수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전체 수출물량중 37.8%를 차지하고 있다.

〈표1〉 연도별 돈육수출(추정) (단위: 두)

구분	'86	'87	'88	'89	'90
전체돈육수출량	18,140	74,760	144,900	217,390	289,850
제일제당수출량	8,430 (42.5%)	17,270 (23.1%)	38,650 (26.7%)	72,460 (33.3%)	101,450 (35.0%)

제일제당은 앞으로 양돈농가에 사료공급과 기술지도를 적극 확대하고 이채널을 통해 육가공 및 돈육수출을 위한 원료돈을 확보할 계획이다. 즉 제일제당이 사료를 공급하는 축협, 단협, 위탁점, 양축가, 양돈기업들이 바로 돼지 구매창구로 활용하게 된다. 